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6, No. 140, pp.277-315
<https://doi.org/10.29212/mh.2026..140.27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논문 2

삼국 멸망 과정의 위기관리 비교 연구: 국력요소(DIME)의 변화와 적국의 간접전략을 중심으로

김태진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목 차
1. 서 론
 2.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
 3. 삼국의 멸망 과정과 위기관리 비교 분석
 4. 삼국 멸망의 시사점과 안보적 함의
 5.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고대 한반도 삼국의 멸망 과정을 현대 군사학의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과 합동교범의 ‘국력요소(DIME)’, 그리고 앙드레 보프르의 ‘간접전략’ 이론을 분석 틀로 하여 통시적·비교론적으로 고찰한 논문이다. 분석 결과, 백제와 고구려의 패망은 외부 적국이 구사한 간접전략의 침식에 적절히 예방·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외침형 위기관리 실패였다. 반면 신라의 종말은 170년에 걸친 국가 목표 상실, 독서삼품과의 역설에 따른 무반 엘리트 약화, 조세 체계 파탄에 의한 군사력의 사유화 및 안보 타율화 등 내부 시스템 노후화와 공적 무력 독점권 해체에 따른 위기관리 실패의 전형이었음을 규명하였다. 나아가 복구 단계에서 단행된 신라 경순왕의 고려 귀부를 무력 패망이 아닌 백성과 문화 자산 보존을 위한 ‘전략적 체제 이양’으로 재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고대 삼국의 흥망성쇠를 통해 북한의 대남 간접전략을 통한 침식 및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위협에 직면한 현대 대한민국의 포괄안보 예방·대비 태세 강화에 실전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백제멸망, 고구려멸망, 신라귀부, 위기관리, 국력요소, 간접전략

1. 서론

국가의 흥망성쇠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상이며, 거대 왕국의 패망은 현대 국가 안보에도 준엄한 교훈을 남긴다. 7세기 고대 한반도에서 전개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그리고 10세기 천년 왕국 신라의 종말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체제 전환 기이자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역학 관계가 전면 재편된 격동의 시기였다. 그동안 역사학계에서는 이들 삼국의 패망 원인에 대해 『삼국사기(三國史記)』 등 1차 사료를 근거로 문헌 고증 중심의 연구를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백제의 멸망은 의자왕 후기의 사치와 지도층의 분열로, 고구려는 연개소문 사후 아들들의 권력 투쟁에 따른 내분으로, 신라는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과 지방 호족의 발호로 규명되는 등 주로 내부적 정치 혼란이나 단기적인 군사적 패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학적 관점의 접근은 고대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었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등 국가 역량 총체인 국력요소의 유기적 결속력 변화와 시스템 노후화를 설명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국가의 패망은 단순히 최종 국면에서 벌어진 전면전의 결과나 통치자 개인의 실정(失政)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인접 적국이 구사하는 비군사적 공작과 이에 대응하는 자국의 국가 시스템적 건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문헌적 고증 성과를 군사학적 관점으로 전환하여, 현대 위기관리 이론과 합동교범의 국력요소(DIME) 분

석 틀을 삼국 멸망 과정에 종합적으로 투사하고, 적국이 구사한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이 대상국의 국력요소를 어떻게 침식하였는지를 통시적·비교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군사학적 토대가 되는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 국력요소(DIME), 간접전략 이론을 살펴본 뒤, 삼국 하대 및 멸망기와 관련된 『삼국사기』의 핵심 기록을 확인하고, 역사학계의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삼국의 위기관리 단계별 멸망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삼국의 위기관리 단계를 획정하여 종합된 표로 제시하고, 백제·고구려·신라의 국가별 위기단계별 국력요소 변화를 서술한 뒤, 국력요소와 간접전략의 결합 메커니즘을 횡적으로 종합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삼국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군사학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북한의 대남 침식 활동 및 중국의 ‘초한전(超限戰)’¹⁾에 대비한 실전적 안보 함의를 정립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전체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제언과 함께 결론을 맺는다.

1) 초한전(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은 1999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교인 차오량(喬良)과 왕상쑤이(王湘穗)가 제시한 현대 군사 전략 개념이다. 이는 ‘모든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전쟁’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군사적 무력 충돌에 국한되지 않고 외교, 정보, 경제, 금융, 법률, 사이버, 심리전 등 국가의 모든 비군사적·유무형 역량을 결합하여 적을 무력화하는 총체적 하이브리드(Hybrid) 전쟁 방식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국가의 전 국력요소(DIME)를 비군사적 영역까지 확장하여 투사하는 간접전략적 수단의 맥락으로 적용한다.

2. 이론적 근거 및 선행연구

가. 군사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

삼국의 멸망단계를 국가안보·위기관리 이론과 국력요소의 군사 교리 반영 내용, 간접전략 이론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삼국 멸망을 군사학적 이론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분석하기 위함이다.²⁾

1) 국가위기관리 지침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기준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³⁾이다. 이 문서는 국가안보실에서 발행하며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로 국가위기관리를 구분한다. 자세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위기관리 단계별 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1단계 예방	위기 요인 사전 제거, 감소하여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취약점의 보완·관리, 정책적·기술적 대안 강구
2단계 대비	위기 상황 하 수행 할 제반 사항을 계획·준비·교육·훈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 대응	위기대응책의 수립 및 점검, 자원 확보·관리, 교육, 연습·훈련

2) 사례연구의 유형중 ‘해석적 사례연구(interpretive casestudy)’로 이론을 통해 사례를 이해하나 이론에 대한 평가는 미 실시 한다.(군사학연구회, 『군사학연구방법론』, 북코리아, 2017, 191쪽.)

3) 대통령훈령 제454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2023.3.15.)

3단계 대응	위기 발생 시 국가자원과 역량 효율적 활용, 신속 대처함. 피해 최소화, 추가적인 위기 발생과 위기 확대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대응조직 및 대책기구의 가동, 공조체제, 응급대응
4단계 복구	발생된 피해를 위기 이전 상태로 회복, 제도 개선과 운영체제 보완, 재발을 방지, 위기관리 능력 강화 활동	자원의 투입과 원상회복, 위기관리 활동의 평가

* 출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19~24쪽 정리

본 연구에서는 삼국 멸망 과정을 국가안보실의 위기관리 4단계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현대의 위기관리에 대한 이론 중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순환과정으로 위기를 인식하는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국 남 캘리포니아 대학의 페탁 교수⁴⁾가 제시한 이 이론은 재난과 위기를 관리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적용하는 위기관리기본지침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 안보상황에 대한 인식을 넘어 최근에는 ‘포괄안보 관점에서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각종 요소를 국가방위요소로서 대응해야 한다’⁵⁾고 강조하는 분위기이다.

삼국의 국가위기관리를 위기단계별로 국력요소가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국력요소인 ‘DIME’과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으로 분석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2) 국력요소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본교리는 국력요소(DIME)를 2022년에 반영하였다.⁶⁾ 국력요소의 구성요소는 외교(Diplomacy)·

4)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교수인 William J. Petak은 1985년 ‘Public Administrative Review Vol.45, Special Issue’에서 “Emergency Management: A Challenge for Administration” 제목으로 된 논문을 통해 4단계로 위기(재난) 관리를 제시했다.

5) 김태진,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 북코리아, 2023, 15쪽.

6) 합참, 『합동교범0 군사기본교리』, 국방출판지원단, 2022, 1-12쪽.

정보(Information) · 군사(Military) · 경제(Economy)로 구분된다. 국력요소는 흔히 외교력·정보력·군사력·경제력으로도 표현하기도 한다.⁷⁾

‘외교는 국가안보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며, 군사작전에 대한 외국의 지원 및 지지를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를 통해 동맹, 우방국들과 연합을 결성하여 군사능력을 강력하게 발휘할 수 있다. 역제를 통해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외교 실패로 전쟁이 발발시 군사가 주요수단이 되므로, 이것과 군사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해야 한다.’⁸⁾고 제시하고 있다. 군사력으로 타격하는 것보다 외교가 중요함을 손자병법에서도 제시하고 있다.⁹⁾ 따라서 삼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국력요소인 외교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한다.

‘정보는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요소로써 외교 · 군사 · 경제력 발휘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관련 부처와 기관에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 활용까지 포함한다. 인간의 인식과 행동변화에 현대전은 중점을 두고 작전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 정보작전 등의 방법으로 정보를 의도적으로 특정하게 전파한다.’¹⁰⁾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정보가 국력의 수단으로서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삼국이 국가운영간 국내 · 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였는지는 물

7) 2014년 발간한 ‘합동교범0 군사기본교리’에는 ‘국력의 수단’과 ‘국가안보요소’로 반영되었다. 참고로 미국 합참은 2013년에 ‘국력의 수단(Instruments of National Power)’을 ‘합동교범1 미 군사기본교리(Joint Publication1 Doctrine for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에 반영 하였다.

8)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1-13쪽.

9) 손자(김광수 해석하고 씀), 『손자병법』 책세상, 2012, 92쪽. “故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10)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1-13쪽.

론, 정보를 근거로 국력요소인 군사와 외교, 경제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군사는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요소이다. 평시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 적의 위협 감소, 위협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위협 발생시 위협 제거에 중점을 둔다. 또한 국가 간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안보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한다.’¹¹⁾고 제시하고 있다. 군사는 국가안보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삼국이 군사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였는지를 분석한다.

‘경제는 국가안보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요소이다. 이것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된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것을 기초로 첨단 물자와 장비를 확보하며, 가용 예산 활용, 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시에 획득 및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경제 봉쇄,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적의 위협을 억제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국가안보에 유리한 여건을 경제협력을 통해 조성할 수 있도록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¹²⁾고 제시하고 있다. 삼국의 멸망시기에 경제분야는 어떠한지를 분석한다.

3)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

간접전략은 ‘군사적 승리 외의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성과를 획득하고자 모색하는 것이다.’¹³⁾라고 정의한다. 외교, 정치, 경제적 방법 등 군사적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목적을 실현한다.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은 직접전략(Direct strategy)의 반대적 개념이다. 직접전략(Direct strategy)은 군사력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이것은 군사력을 직접적으로 정면 공격하는 방법과 우회적, 간접적으로 접근

11)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1-13쪽.

12)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1-14쪽.

13) 앙드레 보프르, 『전략론』, 국방대학교, 1975, 139쪽.

(Indirect Approach)하는 방법이 있다.

프랑스의 전략가인 앙드레 보프르는 간접전략(Indirect strategy)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침식방법(erosion method), 외부책략(external manoeuvre), 내부책략(internal manoeuvre), 단편책략(piecemeal manoeuvre) 등으로 그의 저서 『전략론』에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에는 인접국가의 간접전략이 구사된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백제의 경우 간자인 조미압의 역할이고, 고구려의 경우는 연개소문 아들들간의 이간을 가져오게 한 ‘어떤사람(或)’이 있다. 신라의 경우는 이 부분이 작동되었다고 보기에는 제한이 되나, 역사학자의 선행연구에서 경순왕이 박씨왕가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견훤과 결탁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다음 장에서 제시한다.

나. 선행연구

1) 삼국사기

삼국 멸망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출발점은 고대사 연구의 근간인 1차 사료 『삼국사기』의 기록이다.

백제멸망과 관련된 『삼국사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A-① 16년(656) 봄 3월에 왕이 향락에 빠져서 궁인들과 음란과 술 마시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좌평 성충이 적극적으로 간언하였더니, 왕이 노하여 감옥에 그를 가두었다. 이로 말미암아 말하려는 자가 감히 없었다. 성충은 굶주려 감옥에서 죽었다(十六年, 春三月, 王與宮人淫荒耽樂, 飲酒不止, 佐平成忠 或云淨忠, 極諫, 王怒囚之獄中. 由是無敢言者. 成忠瘐校勘死).¹⁴⁾

14) 『삼국사기』 권28, 백제 본기6, 의자왕 16년 3월.

A-② 17년(657) 봄 정월에 41명의 왕의 서자를 좌평 임명, 각각 식읍을 내려주었다(十七年, 春正月, 拜王庶子四十一人爲佐平, 各賜食邑).¹⁵⁾

A-③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싸우는 것과 지키는 것 중에서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신하들을 모아 물으니 좌평 의직이 말하기를,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깊은 바다를 건너 왔으니 물에 익숙하지 못한 자는 배에서 분명 피곤할 것입니다.(중략) 그러므로 먼저 당나라 사람과 결전을 벌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달솔 상영(常永) 등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 군사는 멀리서 왔으므로 빨리 싸우려 할 것이니 그 칼끝을 당할 수 없으며, 신라 사람은 예전에 여러 차례 우리 군사에게 패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대의 기세를 보면 겁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략).”라고 하였다. 왕은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주저하면서 물었다.(王聞之, 會羣臣問戰守之宜, 佐平義直進曰, “唐兵遠涉溟海, 不習水者在船必困,(중략) 故知先與唐人決戰, 可也.” 達率常永等曰, “不然, 唐兵遠來, 意欲速戰, 其鋒不可當也, 羅人前屢見敗於我軍, 今望我兵勢, 不得不恐.(중략).” 王猶豫, 不知所從)¹⁶⁾.

A-④ 또 당나라와 신라 군사가 백강과 탄현을 이미 지났다 하는 말을 듣고 계백 장군을 보내 5,000명의 결사대를 거느리고 황산에 나가 신라 군사와 싸웠는데, 네 번 싸워 모두 이겼으나 군사는 적고 힘이 부족하여 마침내 패하고 계백이 사망하였다(又聞唐羅兵已過白江·炭峴, 遣將軍塔伯, 帥死士五千出黃山, 與羅兵戰, 四合皆勝之, 兵寡力屈竟敗, 塔伯死之).¹⁷⁾

위의 기록에서 A-①은 의자왕이 ‘음향탐락’으로 인해 신하의 충언을 즉위 15년이 지나면서 듣지 않았고, 성충은 옥에서 굶어 죽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A-②는 백제의 관직 구조상 ‘6명에게만 부여하던 좌평의 직위’¹⁸⁾를 41명의 아들들에게 내리고 식읍 제공 등

15) 『삼국사기』 권28, 백제 본기6, 의자왕 17년.

16) 『삼국사기』 권28, 백제 본기6, 의자왕 20년.

17) 『삼국사기』 권28, 백제 본기6, 의자왕 20년.

백제의 국내정치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인다. A-③은 백제 의자왕과 대신들이 나당연합군의 공격 상황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군을 먼저 공격하자고 좌평 의직은 주장하고, 신라군을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달솔 상영 등은 주장하고 있다. A-④는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맞아 계백 장군과 5천 결사대가 황산에서 전투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고구려 멸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B-① 보장왕(寶臧王)은 이름이 장(臧)이며, 시호는 나라를 잃은 까닭에 없다. 건무왕(建武王)¹⁹⁾의 아우인 대양왕(大陽王)의 아들이다. 건무왕 재위 25년째 해에 개소문이 왕을 시해하고 장을 세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王諱臧 或云寶臧., 以失國故無諡. 建武王弟大陽王之子也. 建武王在位第二十五年, 盖蘇文弑之, 立臧繼位.)²⁰⁾

B-② [25년(666)]개소문이 죽고 남생이 장자로서 대신 막리지가 되었다. 국정을 맡고 처음 순행을 여러 성에 나아 가면서, 그의 동생 남건과 남산에게 남아서 뒷일을 맡게 하였다. 어떤 사람이 두 동생에게 말하기를, “남생은 두 아우가 핍박하는 것을 싫어하여 제거하려고 하니 먼저 계책을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하였다. 두 동생이 이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이 남생에게 알리기를, “두 동생은 형이 돌아와 그 권력을 빼앗을까 두려워하여 형을 막고 들이지 않으려 합니다.”라고 하였다. 남생이 친한 사람을 평양에 몰래 보내 살피게 하였는데 두 아우가 그를 붙잡았다. 왕명으로 남생을 불렀지만 남생은 감히 돌아오지 못하였다. 남건이 스스로 막리지가 되어 병력을 내어 그를 토벌하니 남생이 달아나 웅거를 국내성에 하면서 그 아들 현성에게 당에 나아가 구원을 청하게 하였다.(蓋蘇文死, 長子男生代爲莫離

18)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 『백제연구』 9호, 1988, 272쪽.

19) 제24대 영류왕을 말한다.

20) 『삼국사기』 권21, 고구려 본기9, 보장왕 원년.

支. 初知國政, 出巡諸城, 使其弟男建·男產留知後事. 或謂二弟曰, “男生惡二弟之逼, 意欲除之, 不如先爲計.” 二弟初未之信. 又有告男生者曰, “二弟恐兄還奪其權, 欲拒兄不納.” 男生潛遣所親, 往平壤伺之, 二弟收掩得之. 乃以王命召男生, 男生不敢歸. 男建自爲莫離支, 發兵討之, 男生走, 據國內城, 使其子獻誠, 詣唐求哀.)²¹⁾

B-③ 보장왕이 천남산을 보내 수령 98인을 거느리고 백기(白旗)를 가지고 이적에게 나아가 항복하게 하였는데, 그는 이들을 예로써 접대하였다. 천남건은 문을 닫고 여전히 항거하여 지키면서, 병력을 자주 내보내 싸웠으나 모두 패하였다. 남건이 승려 신성(信誠)에게 군사에 관한 일을 맡겼는데, 신성이 소장(小將) 오사(烏沙)와 요묘(饒苗) 등과 비밀리에 이적에게 사람을 보내 내응하기를 청하였다. 신성이 닷새가 지난 후 성문을 열었다. 이때 이적이 병력을 풀어 성에 오르고, 소리를 지르며 북을 치고 성에 불을 질렀다. 남건은 죽으려고 스스로를 찔렀으나 죽지 못하였다. 왕과 남건 등을 붙잡았다.(王臧遣泉男產, 帥首領九十八人, 持白幡, 詣勣降, 勣以禮接之. 泉男建猶閉門拒守, 頻遣兵出戰, 皆敗. 男建以軍事委浮圖校勘 信誠, 信誠與小將烏沙·饒苗等, 密遣人詣勣, 請爲內應. 後五日, 信誠開門, 勣縱校勘 兵登城, 鼓校勘 噪焚城. 男建目刺不死. 執王及男建等.)²²⁾

B-①은 보장왕이 왕위에 어떻게 즉위하게 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연개소문이 영류왕을 시해하고 보장왕은 옹립되었다. 따라서 보장왕의 통치력이 강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B-②는 연개소문이 사망한 이후에 장남과 동생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아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 인원은 ‘어떤 사람(或)’으로 제시되고 있다. B-③은 고구려 패망 당시의 최후 모습이다. 평양성을 공격한 이적의 군대에 보장왕이 남산을 보내어 항복하는 모습과, 이후에 최후까지 항전하던 남건과 보장왕을 사로잡게 되어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부분이다.

21) 『삼국사기』 권22, 고구려 본기10, 보장왕 25년.

22) 『삼국사기』 권22, 고구려 본기10, 보장왕 27년.

신라 멸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C-① 혜공왕 대 대공의 난(96각간의 난) 발발 (768년), 일길찬 대공이 아우 아찬 대렴과 함께 가을 7월에 반란을 일으켰다. 무리를 모아 33일간 왕궁을 에워쌌지만 왕의 군사가 이를 쳐 평정하고 9족을 베어 죽였다.(秋七月, 一吉澹大恭與弟阿澹大廉叛. 集衆圍王宮三十三日, 王軍討平之, 誅九族.)²³⁾

C-② 김헌창의 반란 (822년), 3월에 웅천주의 도독 김헌창이 아버지인 김주원이 왕이 못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나라 이름은 장안, 연호는 경운이라 하였다. 무진주, 완산주, 사벌주, 청주 네 주의 도독과 서원경, 국원경, 금관경의 사신 및 여러 군데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켰다. 청주 도독 향영은 몸을 빼 추화군으로 달아났고, 우두주, 한산주, 복원경, 삼량주, 패강진 등은 김헌창의 역모를 미리 알고 병사를 동원하여 스스로를 지켰다.(三月, 熊川州都督惠昌, 以父周元不得爲王反叛, 國號長安, 建元慶雲元年, 脅武珍·完山·菁·沙伐四州都督, 國原·西原·金官仕臣及諸郡縣守令, 以爲己屬. 菁州都督向榮, 脫身走推火郡, 漢山·牛頭·歆良·湔江·北原等, 先知惠昌逆謀, 舉兵自守.)²⁴⁾

C-③ 흥덕왕 대 장보고 청해진 설치 (828년), 여름 4월에 청해대사 궁복은 성이 장씨이고, 당 서주로 건너가 군중 소장이 되었다가, 나중에 귀국하여 왕을 뵈었으며, 부하 10,000명을 거느리고 청해에 진을 설치하였다.(夏四月, 淸海大使弓福, 姓張氏, 入唐 徐州爲軍中小將, 後歸國謁王, 以卒萬人, 鎮淸海)²⁵⁾

C-④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다.(892년), 6년 완산의 반란 세력 견훤이 완산주를 근거로 스스로 후백제라 일컬으니, 무주 동남쪽의 군현들이 그에 투항하여 복속하였다.(六年, 完山賊甄萱, 據州自稱後百濟, 武州東南郡縣降屬.)²⁶⁾

23) 『삼국사기』 권9, 신라 본기9, 혜공왕 4년 7월.

24) 『삼국사기』 권10, 신라 본기10, 헌덕왕 14년 3월.

25) 『삼국사기』 권10, 신라 본기10, 흥덕왕 3년 4월.

26) 『삼국사기』 권11, 신라 본기11, 진성왕 6년.

C-⑤ (901년) 5년에 궁예가 왕을 칭하였다.(五年, 弓裔稱王.)²⁷⁾

C-⑥ (918년) 여름 6월에 궁예 휘하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하여 태조를 추대하였다. 궁예는 달아나다가 아랫사람에게 살해되었다. 태조가 즉위하여 원년을 칭하였다.(夏六月, 弓裔麾下人心忽變, 推戴太祖. 弓裔出奔, 爲下所殺. 太祖即位, 稱元.)²⁸⁾

C-①은 혜공왕 대 96각간의 난과 C-②는 김현창의 반란에 대한 내용이다. 822년에 발발한 ‘김현창의 난’은 신라 국토의 절반 이상이 동조한 거대한 안보 위기였다. C-③은 흥덕왕 때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관련 내용이다. C-④, ⑤, ⑥은 신라 멸망 과정의 위기관리에서 대응 단계로 결정적 국면이다. 즉 통일국가였던 신라가 후백제, 후고구려와 이를 이은 고려의 개국으로 분열을 맞게 된 내용이다.

2) 역사학계 선행연구

이러한 1차 사료를 바탕으로 전개된 역사학계의 선행연구는 지배층 내부의 역학 관계와 구조적 모순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백제 멸망에 대해 학계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우선, ‘지배층의 사치와 향락, 자만과 안일로 보는 것’²⁹⁾과 기존세력으로 보는 ‘대성팔족(大姓八族)과 신진귀족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보는 것’³⁰⁾이다. 이에 따라 의자왕의 정치적 갈등과 ‘음향

27) 『삼국사기』 권12, 신라 본기12, 효공왕 5년.

28) 『삼국사기』 권12, 신라 본기12, 경명왕 2년.

29) 이호영, 「백제패망원인론」, 『경희사학』 14, 경희사학회, 1987, 147쪽.

30)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 『백제연구』 9, 1988, 276쪽.
(동일한 관점의 연구는 박민정, 「무왕·의자왕대 정국운영의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탐락'이 패망의 원인이었다고 파악하였다. 반면, '백제가 파국을 맞은 것은 국내정치의 분열로 인한 것이라는 시각에 의문이 많다'³¹⁾고 보는 연구와 '의자왕의 실정 측면보다는 정치세력 변화에 따른 혼란상'³²⁾으로 보아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이것은 『삼국사기』등 1차 사료를 기록한 측에서 분열상을 강조하여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측면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자왕 통치동안의 군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는 분석내용에서 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우선, 의자왕 즉위 초기 '정치세력의 갈등 해소와 왕권강화를 위해 신라를 공격'³³⁾하였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신라가 군사적으로 백제를 능가하게 되었다'³⁴⁾고 주장하는 연구이다. 이때부터 '구두 약속에 지나지 않았던 나당 군사동맹을 660년에 실제로 가동할 수 있게 만든 하나의 동인이 되었다.'³⁵⁾고 평가했다. 한편, 백제의 멸망원인으로 보는 황산벌 전투를 '군사적으로 잘 운용 하였으면 승리할 수도 있었다'³⁶⁾고 주장한 성과물도 있다.

고구려 멸망에 대해 학계는 연개소문이 등장한 642년부터 고구려의 쇠퇴와 멸망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³⁷⁾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연개소문의 정변과 집권이 당이 고

31) 이희진, 「백제-신라 전쟁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백제멸망 원인 재검토」, 『한국고대사연구』 2012, 12쪽.

32) 장미애,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변화와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85, 한국역사연구회, 2012, 85쪽.

33)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23, 경주사학회, 2004, 6쪽.

34) 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 신라문화연구소, 2016, 225쪽.

35) 이문기, 앞의 논문, 233쪽.

36) 서정석,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의 실상」, 『군사』 76, 군사편찬연구소, 2016, 22쪽.

37) 이문기, 「고구려 멸망기 정치운영의 변화와 멸망의 내인」, 『한국고대사연구』, 2008, 61쪽.

구려를 침략하는데 중요한 빌미가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그때의 정변이 고구려 멸망의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는 점, 642년의 연개소문의 정변을 기준으로 고구려 후기로 나눌 수 있다는 제안이나 기존의 귀족 연립체제가 연개소문의 집권으로 붕괴된 것으로 보는 주장까지 나와 있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삼국사기의 기록에 나오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나당이 아니라 권력다툼 과정에 있는 내부 귀족으로 연구한 결과도 있다.³⁸⁾ 이 ‘어떤 사람’을 신라 또는 당에서 간접전략으로 고구려 내부에 침투한 간자(間者)로 추정할 수 있다.

신라 멸망에 대한 학계의 연구 관련, ‘중앙귀족과 지방귀족의 구분으로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에 상대적으로 투사가 약화된 것이 멸망의 원인중 하나’³⁹⁾라고 하면서 골품제의 문제를 제기한 결과가 있다. 김현창 난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 ‘신라 멸망의 단초가 되는 지방세력의 대두, 지방권력의 등장’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이때까지는 ‘신라 왕족이 단합하여 이 난을 극복하여 100여년을 더 지속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 개선은 제한되었다’⁴⁰⁾고 주장하기도 한다. ‘왕위 쟁탈전에 사병을 운용했다.’⁴¹⁾고 하면서, 이것은 그 당시 국군 조직인 정(停)과 당(幢)이 붕괴된 시각으로 보면서, 김현창의 난 당시에 ‘신라 정규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⁴²⁾이라고 하였다. 반면,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⁴³⁾를 통해 원성왕 대 단행된 독서삼품과는 기득권의 반발에 부딪혔을

38) 정원주, 「남생의 실각 배경과 그의 행보」,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309쪽.

39) 하일식, 「신라의 지방통치방식에 대하여」, 『한국역사연구회회보』 3, 1989, 12쪽.

40) 주보돈, 「신라 하대 김현창의 난과 그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260쪽.

41) 이기백, 「신라사병고」, 『역사학보』 9, 1957, 54쪽.; 윤선태, 「신라 귀족의 족병」, 『역사비평』 여름호, 1995, 291쪽.(족병은 진골 귀족의 집안단위로 운영되었다는 것을 제시함.)

42) 이상훈, 「김현창의 난과 신라군의 대응」, 『군사연구』 138, 2014, 29쪽.; 「신라 하대 왕위계승전과 사병의 확대」, 『신라학보』 48, 2020, 10쪽.

43)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뿐만 아니라, 군사적 지휘 전문성을 갖춘 무반 관료집단을 소외시킴으로써 안보적 역설을 야기했다는 학계의 진단이 존재한다. 한편, 청해진 설치가 해상 안보 확충의 일환이었으나, 중앙 조정의 통제력이 약화된 공백을 틈타 지방 군진세력이 비대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공적 무력의 사유화가 되었다는 연구로 ‘진골 귀족들이 가문 단위로 사적 무력을 운용하여 공적 군제가 와해’된 측면을 분석⁴⁴⁾한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장보고 등 군진세력이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 직접 개입한 현상’을 분석⁴⁵⁾하며, 국가의 공적 군사력이 사유화되면서 중앙의 안보 통제력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으나 귀족세력의 반발로 개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신라 멸망 당시의 전체적 모습을 ‘군사력 규합은 없었고, 불교지도자는 은거하였으며 호족의 지방이주 등이 있었다.’⁴⁶⁾고 주장하였다. 한편, ‘경순왕 세력이 견훤과 결탁하여 박씨왕가를 몰아내었다.’⁴⁷⁾고 주장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것은 신라멸망과정에도 적국의 간접전략이 작동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덕재의 연구⁴⁸⁾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김종수는 신라하대 군제의 변화와 왕권의 약화를 연구하여 ‘중앙군의 약화가 지방군진세력의 등장으로 나타났다고 주장’⁴⁹⁾하였다. 이정신은 신라의 농민이 유랑민을 거쳐 도적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방의 촌주 세력이 지방세를 거두어 중앙에

44) 윤선태, 「신라 귀족의 족병」, 『역사비평』 31, 1995, 291쪽.

45) 정청주, 「신라하대 군진의 설치와 그 성격」, 『전북사학』 11·12, 1988, 31쪽.

46)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박씨왕가」, 『한국민족문화』 31, 2008, 27쪽.; 「신라말의 개혁과 최치원」, 『신라사학보』 5, 2005, 131쪽.

47) 조범환, 「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 129, 1991, 21쪽.

48) 전덕재, 「후삼국시대 신라의 동향과 멸망에 대한 일고찰」,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8, 2017, 210쪽.

49) 김종수, 「신라 하대 군제의 변화와 그 붕괴」, 『군사』 80, 군사편찬연구소, 2011, 20쪽.

반납하였다고 하며 ‘진성여왕 때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⁵⁰⁾고 주장하였다. 음선혁은 ‘신라 멸망의 국가위기관리 부실을 제기’⁵¹⁾하면서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위기관리 복구단계를 경순왕으로 보는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웅은 ‘신라멸망을 고려의 귀부로 해석’⁵²⁾하면서 전쟁으로 멸망한 백제나 고구려와 같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연구를 하였다.

3. 삼국의 멸망 과정과 위기관리 비교 분석

가. 삼국 멸망 과정의 위기관리 단계 설정

고대 삼국의 위기관리를 통시적으로 대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삼국의 멸망 과정을 4단계인 예방-대비-대응-복구로 획정하였다.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준은 위기관리의 결정적 국면인 ‘대응(Response)’ 단계의 획정 이유에 있다. 외세의 전면적 침공으로 패망한 백제와 고구려는 나당연합군의 대규모 군사기동이 시작되고 실제 전면 전쟁이 발발한 시점으로 백제는 660년 5월, 고구려는 666년 8월을 대응 단계로 일치시켰다. 반면 외부의 침공이 아닌 시스템의 노후화와 내부 분열로 와해된 신라는, 제51대 진성여왕 시기인 892년 후백제가 세워지고, 제52대 효공왕 시기인 901년에 후고구려가 개국하여, 통일 국가의 주권과 영토가 3분열 되기 시작한 후삼국 전개 시점을 대응 단계로 설정함

50) 이정신, 「신라하대 농민항쟁의 특징」, 『고려대학교한국사연구소』 2000, 121쪽.

51) 음선혁, 「신라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 귀부의 정치적 성격」, 『역사학연구』 11, 1997, 150쪽.

52) 전기웅, 「고려초기의 신라세력과 그 동향」, 『부대사학』 17, 1993, 142쪽.

으로써 군사학적 대칭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정리한 삼국멸망의 위기관리 단계 설정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삼국 멸망 과정의 위기관리 단계 설정

구분	백제(의자왕)		고구려(보장왕)		신라(혜공왕~경순왕)	
	기간	판단기준	기간	판단기준	기간	판단기준
예방	641년~652년 (12년)	당나라와 외교적 단절 이전	642년~665년 (23년)	연개소문 막리지로 실권 행사	765년 6월 (36대 혜공왕) ~ 826년 10월 (41대 헌덕왕) (61년)	왕위 찬탈과 지방 반란 (김헌창의 난)
대비	653년~660년4월 (7년4개월)	나당이 전쟁 개시하기 이전	665년~666년7월 (1년)	형제간 갈등, 남생 막리지	826년 10월 (42대 흥덕왕) ~ 887년 7월50대 (50대 정강왕) (61년)	지방 군진 설치 등 위기에 대비
대응	660년5월~7월 (2개월)	나당과 전쟁	666년8월~668년9월 (2년1개월)	나당과 전쟁 남건 막리지	887년 7월 (51대 진성왕) ~ 927년 11월 (55대 경애왕) (40년)	후삼국 개국 전국적인 농민 봉기
복구	660년8월~663년11월 (3년4개월)	백제부흥군의 부흥운동 (전쟁)	668년9월~673년 (5년)	고구려 부흥군 부흥 전쟁(1차)	927년 11월 ~ 935년 11월 (56대 경순왕) (8년)	자력 체제 복구 불가 '고려 귀부'
			673년~681 (8년)	보장왕의 부흥운동(2차)		

*출처 : 연구자가 작성

나. 삼국 멸망 과정의 위기관리

1) 백제

위의 <표 2>에서 설정한 구분에 따라 백제 멸망 과정의 위기관리를 분석한 김태진(2024)의 선행연구⁵³⁾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53) 김태진, 「의자왕대 백제의 위기관리 연구」, 『군사연구』, 2024, 29~62쪽.

아래와 같다.

예방 단계에서 백제는 신라의 미후성 등 40여 성을 함락하고 대야성을 쳐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이는 등 왕성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했으나, 대당 외교의 빈도가 8회에 그치며 12회의 외교전을 펼친 신라에 주도권을 넘겨주어 648년 나당동맹 체결을 허용하는 패착을 두었다.

대비 단계(653~660년 4월)에 진입하며 652년 당과의 외교가 전면 단절되었고, 지배층의 권력이 태자 용 중심의 부여지역 구세력과 태자 효 중심의 익산지역 신세력으로 양분되어 정쟁이 심화되었다. 657년 왕서자 41명에게 좌평 직위와 식읍을 분배함으로써 국가 경제 운용이 급격히 약화 되었고, 신라의 간자 조미압에 의한 심리적 침식으로 정보력이 마비되어 성충 등 충신들이 투옥·옥사하였다.

대응 단계(660년 5월~7월)에서 나당연합군의 기습 침공을 받았으나 당나라군과 신라군 중 어느 쪽과 먼저 전투를 해야하는지를 놓고 지도부의 방어전략 이견으로 조치가 지연되었고, 계백의 5천 결사대가 황산(黃山)에서 분전했으나 군사적 대비 부족으로 패망하였다.

복구 단계에서는 흑치상지, 복신 등이 왜군 1만 명과 연합해 백촌강 전투 등 3년 4개월간 부흥전쟁을 전개했으나 수뇌부 내분으로 종말을 고했다. 이러한 백제의 멸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백제 멸망과정의 위기관리

구분	백제의 국력요소				신라의 간접 전략(IS)
	외교(D)	정보(I)	군사(M)	경제(E)	
예 방 (641~ 652)	• 643 고구려와 화친 • 645 당군이 안시성 전투 참패하자 의자왕은 당과 고구려의 양면외교를 포기하고 고구려와 관계강화함 (외교적 패착) • 652 당과의교단절	• 641 의자왕 집권 (40세) *의자와 정적 다수	• 642.7월 의자왕 신라 대야성 등 40여 성 공격 함락 • 642.8월 윤중 대야성 공격 • 645 신라의 7성 차지 • 648 상주지역 요차성 등 10성 차지 • 649 진천 도살성 공격	• 군사적 공격이 왕성한 바탕에는 경제력이 뒷받침 되었다고 판단됨	• 642 김춘추, 고구려와 화친실패, 그 이후 당과의 외교집중(매년 사신 보냄) • 644 김유신 백제7개성 탈취 • 646 김춘추 왜 방문 • 648 김춘추 당 방문 (나당동맹제결-당태종)
대 비 (653~ 660. 4월)	• 653 왜와 우호 맺음 • 655 당과 외교관계 돌아킬 수 없는 단계	• 656 좌평 성충 감옥행 • 660 좌평 홍수 감옥행 • 백제정치체력의 전환기 (전·후기) *태자가 장남 '음'에서 '효'로 교체 (귀족간 다툼)	• 655 백제, 고구려·말갈과 연합하여 신라30여성 공격 • 656 성충 옥중상서 (탄원, 기벌포 방비) • 659 독산성, 가림성 공격	• 657 왕서자 41인에 대한 좌평 임명 (재산배분)	• 간절 조미압 운용 (신라의 부산현 현령, 전쟁포로로 백제좌평 인자의 가능성이 됨) * 김유신은 조미압을 통해 백제의 상황을 보고 받고, 좌평 임자를 매수하게 함. • 신라, 당과의 적극적인 외교로 백제 고립
대 응 (660. 5월~ 7월)	• 당과 외교단절 상태 • 고구려와 연계	• 당군과 신라군 전쟁준비, 이동 등 정보수집 미흡 • 정치 신구 세력간의 갈등 *구세력: 태자 '음' 중심의 좌평세력 *신세력: 태자 '효' 중심의 달솔세력	• 좌평 의자왕 당군 상륙전 선제공격하여 신라군 사기저하방안 제시 • 달솔 상양 당군에게 백강을 열어주고 신라군을 탄원으로 끌어들이어 타격방안 제시 • 좌평 홍수탄원, 기벌포 방어(지구전 주장) • 7.9일 황산벌 전투 • 7.9일 웅진포 전투 • 7.12일 사비성 전투		• 5월 신라군 경주 출발 • 6.18일 당군 성산 출발 • 6.21일 덕몰도 도착 • 웅진성주(예식전)의 반역
		• 7.18일 의자왕 항복			
복 구 (660. 8월~ 663. 11월)	• 부흥 백제국(주류성) '고구려', '말갈', '왜'와 외교 통한 군사지원 • 662.5월 왜군 1만과 함께 지원 음 (부여풍)	• 백운강 전투, 주류성 전투, 임존성 전투를 위한 정보수집 활동 • 백제부성 공격 (2차), 윤광도 차단작전(3차), *부흥운동 주도 -복신: 무왕의 조카 -혹치상지 (임존성) -도침: 승려	• 660.8.26일 임존성 전투 • 660.10.9일, 1차 백제부성(사비성) 포위공격 • 661.2~3월, 2차 백제부성(사비성) 포위공격 • 663.8.27일 백운강 • 663.9.7일 주류성 • 663.11월 임존성		• 660.8.2일 의자왕 항복례 • 660.8.26일 소정방 임존성 공격 • 660.9.3일 소정방과 신라 무열왕 철수 *의자왕, 귀족 등 1만2천여명 당으로 압송 • 661 9월, 신라군 공산성 공격 • 663.11월, 당군에 항복한 '사타상여', '혹치상지'가 임존성 공격하여 함락시킴

* 출처 : 김태진, 「의자왕대 백제의 위기관리 연구」, 『군사연구』, 2024, 52~53쪽 내용을 정리함.

2) 고구려

위의 <표 2>에서 설정한 구분에 따라 고구려 멸망 과정의 위기관리를 분석한 김태진(2025)의 선행연구⁵⁴⁾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방 단계(642~665년)에서 연개소문은 안시성 전투와 사수 전투에서 당나라 대군을 격퇴하는 강력한 군사 위주의 위기관리를 전개했으나, 642년 김춘추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고 영토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후방의 신라를 적으로 방치하는 치명적인 외교적 패착을 자초하였다. 이 기간 당나라는 진대덕 등을 보내 고구려의 성읍 정보를 철저히 파악 중이었다.

대비 단계(665~666년 7월)는 연개소문 사후 장남 남생이 집권한 시기로, 남생의 지방 순행 중 당의 공작으로 유추되는 사료 속 ‘어떤 사람(或)’의 획책에 의해 동생 남건·남산과의 극단적 불신이 조장되었다. 결국 남생이 국내성으로 도주해 당에 투항하고 아들 연현성이 당군의 향도가 됨으로써 정보와 군사 수뇌부가 스스로 궤멸 되는 양상을 보였다.

대응 단계(666년 8월~668년 9월)에서 차남 연남건이 대막리지로 부임하여 사천원전투 등 결사 항전을 시도했으나, 수당과의 70년 장기 전쟁으로 경제적 기반과 국력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결국 연남건 진영의 군권을 쥔 승려 ‘신성’이 남생 및 당군과 내통, 평양성 문을 열어주게 되어 직접전략인 전쟁에 대응하지 못하고 패망하였다.

복구 단계에서는 안승·검모잠 중심의 1단계 군사적 부흥운동과, 677년 요동으로 귀환한 보장왕이 말갈 세력과 공모해 전개한 2단계 부흥 도모 과정이 전개되었으나 내부 고발로 인해 유배되며 종말을 고했다. 이러한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54) 김태진, 「고구려 패망과정의 위기관리 연구」, 『중원문화연구』, 2025, 109~146쪽.

〈표 4〉 고구려 멸망과정의 위기관리

구 분	고구려의 국력요소				나당의 간접전략(IS)
	외교(D)	정보(I)	군사(M)	경제(E)	
예 방 (642 ~ 665)	•632~640 8년간 고구려와 당나라의 외교는 없었음(가목상) •642 신라 김춘추와 협상 ▪ 신라와 동맹 ▪ 미살사가 고구려 패망의 주요한 원인 •643 당에 외교 요청 ▪ 당과 관계 개선 목적 •659 보장왕, 사신보내 당태종 사망 조문 ▪ 조문외교 통해 관계개선	•642 연개소문 집권 •643 연개소문 도교를 중시하면서 불교도의 반감을 사게됨 •644 연개소문 대막리지 됨 •650 자연제해의 일환으로 백성들 기근, 연개소문 통치에 반발하는 집단 등장(연개소문 사망 후 갈등으로 표출) •665 연개소문 사망	•644 신라공격, 2개성 획득 •644.7 당태종 고구려 정벌 공식 천명(선박건조, 군량준비) •644 고구려가 영주지역 선제 공격 •645. 3 당태종 이세민 10만으로 고구려 침략 ▪6만(육로), 4만(해로) ▪전쟁전 연개소문이 긴장완화 도모(백금 공납, 관인의 숙위)했으나 당의 거부로 무산 •661 신라의 북한산성 공격 •662. 2 연개소문 사수에서 당군 격퇴 •663 군사적 대응 부족 ▪백제부흥군 전쟁지원 미실시	•650 초반, 고구려가아 발생(우박,서리 등 자연재해로 흉작) •당의 견제정책(소모전략)으로 국가자원 소모 •당의 견제정책(소모전략)으로 국가자원 소모	•641 당 태종이 진대역을 고구려에 사절로 보내 정세파악 ▪고구려 성읍별로 관리들에게 비단 주며 고구려의 세세한 정보 수집(보장왕 집권전 상황) •644.7 당 장영 고구려 도착 ▪연개소문 만나 협박하다 수감됨 •644.9 연개소문 당에 백금과 50명의 숙위 요청(당 내부 정세 파악, 전쟁 관련 기밀입수 목적) •645.8 당군이 막리지 첨자 고죽리(高竹離)를 포획
대 비 (665 ~ 666. 7월)	•665 보장왕이 태자를 당나라의 태산 봉신 행사 참여시킨(보장왕이 당나라와 관계개선 도모했다는 근거로 해석 가능) •666 연남생 '불덕'을 당고종에게 보냈으나 만나지 못함 •666.4 염유가 청병사로 당 고종 만남 •666. 당고종 '최현'을 국내성으로 보냄 •666.6 연남생이 아들 연현성을 당에보내 파병 요청	•665 연남생 집권 ▪ 연남생 지방 순시는 지방세력의 안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연개소문-남생으로 이어지는 연씨 정권의 세력구축은 중앙정계에 한정됨) •666초 고구려 내분 발생 ▪간간이 남생의 아들 '현충'을 죽임	•666. 연남생의 대당청병(2회) ▪ 당, 최현 파견 •666.6 연현성 '향도'로 당군과 함께 고구려로 출발	•당의 견제정책(소모전략)으로 국가자원 소모	666. 『삼국사기』 권22 고구려본기 제10, 보장왕 ▪ 어떤사람이 이르기(或謂) -나당의 간접전략 영향으로 형제간 갈등 초래 •666. 당의 태산봉신 참석요구와 이로 인한 내부의 갈등 확대 •남생 VS 남건, 남산 서로 불신계한 원인중 왕권회복을 도모하는 보장왕과 연정토가 연개소문 아들들의 갈등을 초래게 했다는 연구도 있음(정연주)

구분	고구려의 국력 요소				나당의 간접전략(IS)
	외교(D)	정보(I)	군사(M)	경제(E)	
대응 (666.8월~ 668.9월)	• 연남건은 당과 외교적 문제해결 노력 하지 않음. • 7세기 후반, 고구려가 사절단 보냄 (사마르칸트 아프리카시아 공진 박화) • 고구려 조정의 동맹 노력으로 해석 가능	• 주변국 군사동향 수집 부족 • 666 연개소문 동생 연정토 산란에 투항, 고구려 정치 세력의 갈등	• 666.8 보장왕이 연남건 대막리지 임명 • 666.12 당고종, 이작에게 고구려 공격 명령 • 667.2 이적 신성 도착 • 667.7 당군의 신라군 지원요청 • 문무왕 한성주에서 망원령로 따라 복진 개시 후 장새 도착, 당군철수 소식에 회군함 • 667.9 신성 함락 • *‘사부구’가 성주결박, 성문 열어 항복 • 668.2 부여성 당군에 함락(설안귀) • 668.6.29 신라 산발대 김인문 이적 만나 대성산으로 진군 • 668.9.21 신라본대와 당군 ‘사수’에서 합류, 사수전투와 평양성 전투 • 668.9 당군, 한달간 평양성 포위, 보장왕이 연남산을 시켜 이작에게 항복 • 연남건은 성문 닫고 저항, 연남건 측의 승려 신성(信誠)이 연남생과 내통하여 당군 맞아들임으로 평양성 함락	•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파배	• 666.12 연정토 12개 성과 함께 신라에 투항(연개소문 집안의 내부 분열이 고구려 국가 멸망초래, 연정토가 남생 형제들 반목하도록 했다는 측면도 간접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667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 7. 문무왕 11년, 「답설인귀 서」(신라와 당이 고구려 원정에 나서다.)에서 667년 ‘신라 병마가 홀로 공격해서는 안 되었으므로 먼저 간자(間者)를 세 번이나 보내고 배를 계속해서 띄워 대군의 동정을 살펴보기 하였습니다.(新羅兵馬不可獨入, 先遣細作三度, 船相次發遣, 候候大軍)」 • 고구려와의 전쟁간에도 간자 운용 사례 확인 가능함. • 668 승려 신성 • 연남건 진영에서 군사를 맡아보던 승려, 연남생과 내통하여 당군을 맞아들임.
• 9.18일 보장왕 항복					
북구	(668.9월~673.윤5월)	• 670 안승, 신라에 소형 다식을 보내 도움 요청 • 671~672 왜에 사신 보냄	• 670.6 검모장 안승을 사해 ‘사야도’에서 만남. • 670.6 안승 금마자에서 ‘고구려국’ 재건, 신라는 고구려 국왕으로 봉함	• 670.3 고연무, 설요우 장군이 당나라의 고간(高侃), 이근행과 전투(-673년) • *나당전쟁의 시작 전투 • 670.5.4 오골성 전투 • 671.6 석성 전투 • 671.7 안시성 함락 • 672.7 당나라 장수 고간이 이끄는 당병, 평양에 8영을 세움 • 672. 석문전투에서 패함 (신라-고구려 연합군) • 673.윤5월, 당군이 호로하(임진강)에서 고구려 부흥세력 격파(고구려부흥운동 막을 내림)	• 당의 승려 법안, 검모장에 의해 죽음 (당시 승려들은 첩보원 활동) • 안승과 검모장의 갈등(신라가 안승을 설득, 부흥군 본부를 평양성이 아닌 금마재(악산)으로 옮기도록 유도한 정황)
	(673.윤6월~681) *677년2월~681	• 677 보장왕이 요동주 도독 조신왕으로 봉하여 짐, 고구려 부흥운동 도모 발각되어 공주(邳州)로 소환, 다음해 사망	• 674.9 신라가 안승을 보덕왕으로 봉함	• 676.2 당은 평양의 안동도호부를 고성(요동군)으로 옮기고 677년 신성으로 이치	• 보장왕의 부흥운동을 당에 고발한 인원들 존재 -남생 -남생과 부여용 -고구수 -천한성 • 고구려 멸망원인(배근홍) - 고구려의 내분 - 천재로 인한 백성 파배 - 나당의 소요책략

*출처 : 김태진, 「고구려 패망과정의 위기관리 연구」, 『중원문화연구』, 2025, 120~121쪽 내용을 정리함.

3) 신라

위의 <표 2>에서 설정한 구분에 따라 신라 멸망 과정의 위기관리를 분석한 김태진(2026)의 선행연구⁵⁵⁾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방 단계인 제36대 해공왕으로부터 제41대 헌덕왕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신라는 김헌창의 난 등 중대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으나 중앙군인 9서당과 화랑 무리가 가동되어 한 달 만에 난을 궤멸시키는 중앙 군사력의 건전성을 유지했다. 그러나 788년 제38대 원성왕대에 도입된 ‘독서삼품과’는 유학적 문치주의를 강화하려다 도리어 무반 엘리트층을 배척하고 군 지휘 역량 저하를 초래하는 역설을 낳았고, 빈번한 기근으로 816년 절강성으로 백성이 이주하는 등 경제 체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대비 단계인 제42대 흥덕왕으로부터 제50대 정강왕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앙군인 9서당의 통제력이 와해 되면서 골품제 모순으로 이탈한 지방민과 사유화된 무력을 기반으로 장보고 등 지방 군진세력이 대두해 공적 무력 독점권이 파편화되었다. 중앙 귀족들의 사치로 834년 흥덕왕 시기 사치 금지령이 내려졌고, 호족들의 납세 거부로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다.

대응 단계인 제51대 진성여왕으로부터 제55대 경애왕에 이르는 기간 동안 889년 진성여왕 시기 원종·애노의 난을 필두로 전국적 조세 거부 발생해 경제가 파탄 나게 되어 정규군 보급이 중단되었고, 후백제와 후고구려 개국으로 통일 국토가 분열되었다. 견훤이 대야성을 함락하고 서라벌 포석정을 습격할 때 자국 군사력이 마비되어 고려 왕건의 원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의 타율화’에 직면했다.

복구 단계인 제56대 경순왕대에는 사방의 토지가 상실되어 자력

55) 김태진, 「신라 멸망과정의 위기관리 연구」, 『북악사론』, 2026, 445~485쪽.

복구가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화백회의 군신 합의를 거쳐 민족적 연속성과 문화 자산 보존을 위해 고려에 스스로 주권을 이양하는 ‘전략적 귀부’를 결단하여 위기를 종결지었다. 이러한 신라의 멸망 과정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신라 멸망과정의 위기관리

구분	신라의 국력요소				비고	
	외교(D)	정보(I)	군사(M)	경제(E)		
예방 (765~826) 61년	36:해공왕(김견운) (765.6~780.4), 15년 37:선덕왕(김양상) (780.4~785.정월), 5년 38:원성왕(김경신) (785.정월~798.12), 13년 39:소성왕(김준웅) (799.정월~800.6), 2년 40:애장왕(김중휘) (800.6~809.7), 9년 41:현덕왕(김연승) (809.7~826.10), 17년	*대당대의 안정 - 전 제왕 권 의 권위 유 지를 위 한 사절단 파견 지속	*상징적 결속력 강화 768년 성덕대왕 신종 완성 등 이데올로기적 통 합 시도 788(원성왕4) -독서삼품과 설치 *문치주의 강화(무반, 군지휘 엘리트 약화)	*중앙군 (9서당)건재 822 (현덕왕14) -김한정의 난 -난을 진압할 때 중앙군과 화랑(명기, 안락) 출전 825 (현덕왕17) -김범문 (김현창의 아들)의 난	*조세 체계 유지 782(선덕왕3) -패강진에 주민 이주 815(현덕왕7, 8월) -서쪽변방 주군에서 크게 기근 들어 도적이 봉기 819 (현덕왕11, 3월) -조적이 곳곳에서 일어나 주군의 도둑, 태수에게 명하여 잡게 함	*무열왕계 왕위 종료 (해공왕) *내물왕계 왕위 시작 (선덕왕)
대비 (826~887) 61년	42:흥덕왕(김경휘) (826.19~836.12), 10년 43:희강왕(김제용) (836.12~838.정월), 2년 44:민애왕(김명) (838.정월~839. 윤정월), 1년 45:신무왕(김우징) (839.윤정월~7월), 6개월 46:문성왕(김경응) (839.7~857.9), 18년 47:현안왕(김의정) (857.9~861.정월), 4년 48:경문왕(김응림) (861.정월~875.9), 14년 49:현강왕(김정) (875.9~886.7), 11년 50:정강왕(김황) (886.7~887.7), 1년	*지방 세 력의 독자 외교 841년 장 보고의 중 앙정치 개 입 실패로 인한 군진 의 반발	*왕위쟁탈전 진행 • 흥덕왕 -녹읍부활+군 사력 자율화 • 828(흥덕왕3) -장보고 '청해 대사'에 임명 • 839(문성왕1) -장보고를 청해진 장군으로 임명 • 846(문성왕8) -문성왕이 염장을 청해진 에 보내 장보고 목을 베	*중앙군의 약화, 지방군진세 력의 등장 *지방군(10 정)의 이탈 • 현강왕 -일갈찬 신흥 모반사건	*정세권의 사유화	*48대 경 문왕: 화랑 으로서 왕 이던 유일 한 사례

구분		신라의 국력요소				비고 (후백제, 고려의 간접 전략)
		외교(D)	정보(I)	군사(M)	경제(E)	
대응 (887~927) 40년	• 51:진성여왕(김만) (887.7~897.6), 10년 • 52:효공왕(김요) (897.6~912.4), 15년 • 53:신덕왕(박경휘) (912.4~917.7), 5년 • 54:경명왕(박승영) (917.7~924.8), 7년 • 55:경애왕(박위웅) (924.8~927.11), 3년	*후삼국간 외교 진행 • 892 (진성왕6) -견훤 후백제 개국 • 901 (효공왕5) -궁예 후고구려 개국 • 918 (경명왕2) -왕건 고려 개국 • 920 (경명왕4) -고려와 수교 • 경애왕 -고려에 사신(4회) -후당에 사신(장분, 박술흥, 이충식 등) -후백제와의 갈등 관계속 견훤에 의해 자살	*국가목표 상실 • 891(진성왕5) -궁예, 기현에 의지 • 892(진성왕6) -궁예, 원주 양길에 의지 • 926(경애왕3) -견훤이 '웅진' 공격시 왕건에게 공격할 것 요구 • 927(경애왕4) -고려가 후백제 공격시 신라군이 지원	*후삼국간 전쟁 • 918 (경명왕2) -일길찬 현승 모반사건 • 920 (경명왕4) -견훤, 대야성 공격 • 921 (경명왕5) -말갈족의 '달고적' 171명 침입, 고려 견훤 장군이 격퇴	*국가 재정 파탄 • 지방호족이 납세하지 않아 국고 바닥남 • 889 (진성왕3) -원종·애노의 난 • 894 (진성왕8) -최치원 사무 10조 • 896 (진성왕10) -적고적의 난	*왕권 약화 *군진 등장 *후삼국 개국 *조세 거부, 농민 봉기 * 후백제의 간접 전략
복구 (927~935) 8년	• 56:경순왕(김부) (927.11~935.11), 8년	*전략적 귀부 • 932 (경순왕6) -당에 사신 파견	*존립 근거의 전환 - 백성 보호를 명분으로 하여 국가 시스템의 고려 영향 정보 확산	*무력 기능의 소멸 - 중앙군은 의장병 수준으로 전락, 실질적 안보는 고려군에 의탁	*경제적 증속 - 자체 경제권 상실 및 고려로부터 물적 지원 수용	*935. 6월 -견훤, 고려 귀부
935.11월, 신라 멸망(경순왕 고려에 '귀부')						

*출처 : 김태진, 「신라 멸망과정의 위기관리 연구」, 『북악사론』, 2026, 467~469쪽 내용을 정리함.

다. 삼국 멸망과정의 위기관리 단계별 비교 분석

삼국의 멸망 과정을 국력요소(DIME)와 적국의 간접전략 관점에서 종합 비교하면, 외교·정보의 실패와 체제 균열이 군사·경제 영역의 붕괴로 이어지는 명확한 도미노 메커니즘이 도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예방단계

삼국 멸망과 관련되어 예방 단계에서 백제와 고구려는 외교적 패착을 범하였다. 백제는 즉위 초 대 신라 정벌 성공에 취해 대당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여 신라가 648년 나당동맹을 체결하는 것을 방치했고, 고구려 역시 강경 군사력 노선으로 당을 격퇴했으나 김춘추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여 후방의 신라를 적으로 남겨두는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위기 징후를 조기에 억제하는 ‘외교적 예방’에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신라는 하대의 제도적 개선이 안보의 허점을 발생시키는 역설을 보인다. 신라는 외세의 공작 이전인 788년 제38대 원성왕이 도입한 ‘독서삼품과’의 제도로 인해 유학적 문치 정비에만 치중하다가, 국가 무력의 핵심인 실전 무반 엘리트층을 배척하고 군사 지휘 역량의 저하를 초래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했다. 이것은 자생적 예방 실패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방단계에서 당나라는 고구려에 진대덕 등을 보내 성읍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신라 역시 백제의 정적 동향을 파악하는 등 적국은 이미 예방 단계에서부터 정보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다고 분석된다.

2) 대비단계

대비 단계에서 삼국은 지배층의 균열과 공적 무력 독점권의 이완이라는 공통적 병폐를 노출했다.

백제와 고구려는 적국이 구사한 고도의 간접전략인 침식방법에 의해 지도부가 와해되었다. 백제는 신라의 간자 조미압에 의한 심리 침식 공작에 노출되어 충신 성충·홍수가 투옥되는 등 정보판단 기능이 마비되었고, 고구려는 연개소문 사후 권력 공백기에 당의 간자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의 내분 획책으로 형제간 극단적 불신이 조장되어 연남생이 투항하는 수뇌부 궤멸을 겪었다.

이와 달리 신라는 내부 제도의 모순과 중앙군인 9서당의 통제력 와해를 틈타 장보고 등 지방 군진세력과 호족이 대두하며 국가의 공적 무력 독점권이 사유화되고 파편화되는 부작용을 노출했다. 진골 귀족의 사치와 호족들의 납세 거부로 국고가 바닥나기 시작한 것도 이 대비단계의 핵심 징후로 분석된다.

3) 대응단계

대응 단계는 외교·정보의 마비가 물리적 국력요소인 군사와 경제의 해체로 직결된 국면이다.

백제와 고구려는 공통적으로 전면전 대응에 실패하여 멸망으로 귀결된다.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기습 시 지도부의 방어전략 이견으로 당나라와 신라 중 어떤 군대를 선제공격하느냐를 놓고 대처하는 중 군사적 타이밍을 상실했고, 고구려는 강경파 연남건이 항전을 시도했으나 70년 전쟁으로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에서 결국 승리 신성의 내용으로 성문 개방이라는 침식에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신라는 후삼국 개국으로 국토가 분열된 상황에서, 원종·애노의 난 등 전국적 조세 거부로 국고가 고갈되어 정규군 보급이 중단되

었다. 결국 전횡의 침공 시 자국 군사력이 마비되어 고려 왕건의 원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안보의 타율화’ 현상으로 귀결되었다고 분석된다.

4) 복구단계

국가위기관리의 최종 단계인 복구 국면에서 삼국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이는 군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안보학적 재평가의 기준이 된다.

백제와 고구려는 무력에 의해 강제 패망을 당한 후, 백제는 주류성·임존성 중심의 부흥군, 고구려는 안승·검모잠의 군사적 1차 부흥운동과 보장왕의 요동 유민 결성을 통한 2차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부흥운동은 공통적으로 지도부 내부의 권력 갈등과 배신, 적국의 기미체제⁵⁶⁾ 분열 공작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혈 충돌 속에 비극적인 패망으로 종결되었다.

반면, 신라의 경순왕대는 자력에 의한 국가 복구와 체제 유지가 불가능함을 직시하고, 무의미한 항전으로 백성들의 피가 땅을 적 시기보다 화백회의를 통한 군신 합의를 거쳐 고려 태조 왕건에게 주권과 영토를 평화적으로 이양하는 ‘전략적 귀부’를 선택했다. 이는 단순한 항복이 아니라, 위기관리의 최종 목적인 ‘국가 구성원의 생명 보호와 천년 사직의 민족적·문화적 가치 보존’을 달성하기 위해 고도의 정무적 결단으로 감행한 ‘연착륙형 체제 이양’ 사례로 재평가 될 수 있다. 경순왕이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되어 경제적 자치권을 확보하고 가문의 안위를 연착륙시킨 조치는 상호 합의에 의한 제도적 합병 및 위기관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56) 기미체제:굴레 기(羈)와 고삐 미(靡)의 뜻임. 말에게 씌우는 굴레(羈)와 소에게 매는 고삐(靡)라는 뜻으로, 동물을 고삐로 느슨하게 묶어 관리하듯 변방의 이민족을 무력으로 완전히 말살하는 대신, 일정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간접적으로 통제·지배하던 중국 전한(前漢) 이래의 대표적인 이민족 회유 정책.

4. 삼국 멸망의 시사점과 안보적 함의

가. 삼국멸망의 군사학적 시사점

삼국의 멸망 과정에서 나타난 국력요소의 변화와 위기관리 부실은 현대 국가안보와 군사 교리 정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군사학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국력요소의 정보와 군사의 전략적 역설 방지 및 대외 예방외교의 완전성’이다. 백제는 의자왕 즉위 초기의 신라 정벌 성공에 도취하여 대당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함으로써 나당 군사동맹 체결을 방지했고, 고구려 역시 강경 무력 노선에만 의존하다가 김춘추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여 후방의 신라를 적대 세력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적 패착을 범했다. 이는 거시적 대외 예방외교가 무너지면 어떠한 강력한 군사력도 중국에는 한계에 봉착함을 방증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라 하대는 외세의 침략 이전인 788년 도입된 ‘독서삼품과’의 역설로 인해, 유학적 문치 정비라는 정치(정보)적 목적에만 매몰되어 국가 무력의 핵심인 실전 무반 엘리트를 배척하고 군사 지휘 역량의 저하를 초래하는 자생적 예방 실패를 범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해서 대외적 위기 징후를 조기에 통제하는 예방외교를 선행해야 하며, 정보·정치적 개혁이 군 본연의 전투 지휘 전문성과 유형 전투력을 훼손하는 전략적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 지휘 체계의 전문성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

둘째, ‘공적 군사력 유지 및 완벽한 지휘통제의 중요성’이다. 신라 하대의 청해진 설치와 진골 귀족들의 사적 무력인 족병 운용

사례가 입증하듯, 중앙 조정의 통제력이 약화된 공백을 틈타 비정규 군사력과 지방 호족 세력이 비대화될 경우 국가의 공적 군사력 유지권한은 사유화되고 파편화된다. 이는 신라 군대의 정규군인 9서당과 지방군인 10정의 공적 군사력의 완전한 와해로 직결되었다. 백제 의자왕 대 나당연합군의 기습을 앞에 두고 전개된 지도부의 방어전략 이견과 고구려 최후의 순간 막리지 연남건이 군사권을 승려 신성에게 위임했다가 성문 개방이라는 내부 침식을 허용한 사실은 통일된 지휘권과 군사적 자결권이 상실될 때 국가의 방위 시스템이 어떻게 마비되는지 극명히 보여준다. 이는 현대 국가안보 환경에서도 국가의 지휘계통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지 않는 군사력이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적 무력의 발호가 국가 존립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지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물리적 국력요소인 군사와 경제 유지를 위한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안보적 상관관계’이다. 고구려는 수·당 제국과의 70년 장기 패권 전쟁에서 군사적으로는 안시성·사수 전투 등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나, 후방의 생산 기반과 국가 재정 등 경제적 국력요소가 완전히 고갈되는 소모전략에 노출됨으로써 최종 국면을 버텨낼 물적 기반을 상실했다. 백제 역시 의자왕 즉위 후반기 국가 재정의 방만한 운용과 왕서자 41명에 대한 식읍 분배 등으로 경제적 결속력이 약화되었고, 신라 하대는 원종·애노의 난과 같은 전국적인 조세 거부로 국고가 완전히 바닥나 중앙 정부가 정규군인 9서당에게 보급과 급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군사력 해체 단계에 도달했다. 결국 이는 자국 방위 능력을 상실한 채 외세의 원병에만 의존하는 ‘안보의 타율화’ 현상으로 전이되었다. 따라서 군사력이라는 강력한 물적 국력요소의 지속적인 발휘와 안보 시스템의 건전성은 확고하고 건전한 국가 재정 및 경제적 안정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는 통찰을 상기해야 한다.

나. 안보적 함의

삼국의 멸망은 7세기와 10세기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다. 시간적으로는 1,000여년전의 과거이지만,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국력요소와 간접전략의 측면으로 분석하면 한반도 땅에서 동일한 의미를 주고 있다. 따라서 안보적 함의는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첫째, 북한의 대남 침식 활동에 대한 대비이다. 백제의 간자 조미압, 고구려 평양성의 승려 신성과 같이 결정적 순간에 국가 내부의 단결을 와해시키고 성문을 열어준 침식 메커니즘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끊임없이 전개해 온 간접전략의 형태와 본질이 같다.

둘째, 절대권력의 급변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고구려 연개소문 사후 발생한 아들들의 분열은 절대 권력 체제가 지닌 권력 공백기의 사후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현재 절대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사후 또는 급변사태로 인한 내부 혼란 발생 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국가 주권 확립 및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적·안보적 격변 대비 전략을 완벽히 수립해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중국의 ‘초한전’ 식별과 포괄안보 태세 구축이다. 수·당 제국이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구사했던 간첩 운용, 첩보수집, 내부 이간책 등 고도의 간접전략은 현대 중국이 제시한 ‘새로운 전쟁 수행 양상’인 초한전과 맥을 같이 한다. 최근 주변국 세력이 군사시설을 염탐하는 등 국력요소 전 영역에 걸쳐 비군사적 침식 활동이 자행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전통적 군사 안보를 넘어 비전통적 위해 요인까지 망라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포괄안보 관점의 법적·제도적 보완 등과 통합방위태세 가동이 절실하다.

넷째, 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 및 발전과 자주국방의 조화이다.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잦은 침공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를 강력한 나당동맹 체결을 통해 극복하고 통일 대업을 완수했던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지키는 핵심 버팀목이자 안전판임을 실증한다. 다만 신라 말기와 같이 자국 방위 능력을 상실한 채 고려 원병에만 안보를 전적으로 의탁하다 종말을 맞이한 ‘안보의 타율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독자적인 자주국방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안보 자결권을 항시 유지해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고대 한반도 삼국의 멸망 과정을 현대 군사학의 총체적 위기관리 이론과 국력요소(DIME), 간접전략 분석 틀을 통해 통시적·비교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백제와 고구려의 패망이 외부 적국인 신라와 당이 구사한 고도의 간접전략의 침식 공작에 적절히 예방·대비하지 못해 발생한 군사 지도부의 파멸과 전면 전쟁의 결과물이었다면, 신라의 멸망은 170년에 걸친 국가 목표 상실, 정치적 왕위쟁탈전, 지방 호족의 발호, 독서삼품과의 역설에 따른 무반 엘리트 약화, 조세 체계 파탄 등 국가 공적 시스템 전반의 노후화와 무력 독점권 해체에 따른 위기관리 실패의 전형이었음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삼국의 패망 메커니즘을 종합할 때 도출되는 최종 결론은 국가 위기관리가 사후 ‘대응’보다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예방’과 ‘대비’에 전적인 주안을 두어

야 한다는 점이다. 백제와 고구려가 외교적 패착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내부 정보를 적에게 침식당했을 때, 그리고 신라 하대에 최치원의 시무 10조 등 내부 구조적 병폐의 개혁 요구를 기득권의 논리로 묵살했을 때 국가의 파국은 이미 예방·대비 단계에서 결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복구 단계에서 단행된 신라 경순왕의 고려 귀부를 무력에 의한 강제적 패망이 아닌, 무의미한 유혈 충돌을 방지하고 민족적 연속성과 천년의 문화적 자산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선택한 고도의 연착륙 결단으로 ‘전략적 체제 이양’ 사례로 재평가하고자 한다. 이는 자생적 복구가 불가능한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위기관리 수단으로서 안보학적으로 중대한 가치를 지닌다.

결론적으로, 1,400여 년 전 한반도 고대사의 흥망성쇠는 오늘날 북한의 끊임없는 대남 간접전략하 침식과 중국의 초한전 위협에 직면한 대한민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 아래 견고한 안보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무형 전력과 공적 군사력의 완전성을 공고히 하며, 정치적 안정 속에서 국가목표를 통합해야 한다.

본 연구가 고대 삼국의 역사적 사실을 현대 군사이론과 교리로 재해석하여 실전적 안보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백제의 패망과 고구려의 내분, 신라 하대의 시스템 해체가 남긴 준엄한 교훈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예방·대비 기능을 전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2. 단행본

국방대학원, 『전략론』,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1975.

김열수, 『국가안보론』, 법문사, 2022.

김태진, 『포괄안보 관점의 국가위기관리』, 북코리아, 2023.

손자, 『손자병법』 책세상, 2012.

이재준, 『백제멸망과 부흥전쟁사』, 경인문화사, 2017.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해안, 2006.

합참, 『합동교범0 군사기본교리』, 국방출판지원단, 2022.

A. Beaufre, 『AN INTRODUCTION TO STRATEGY』, FREDERICK A. PRAEGER, 1966.

3. 논문

김중수, 「신라 하대 군제의 변화와 그 붕괴」, 『군사』 80, 군사편찬연구소, 2011.

김주성,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동향과 백제멸망」, 『백제연구』 제9호, 1988.

김태진, 「의자왕대 백제의 위기관리 연구」, 『군사연구』, 2024.

김태진, 「고구려 패망과정의 위기관리 연구」, 『중원문화연구』, 2025.

김태진, 「신라 멸망과정의 위기관리 연구」, 『북악사론』, 2026.

문안식, 「의자왕 전반기의 신라 공격과 영토확장」, 『경주사학』 제23집, 2004.

박민경, 「무왕 · 의자왕대 정국운영의 연구」, 『한국고대사연구』 20, 2000.

서정석,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의 실상」, 『군사』 76, 군사편찬연구소, 2016.

윤선태, 「신라 귀족의 족병」, 『역사비평』 여름호, 1995.

음선혁, 「신라 경순왕의 즉위와 고려 귀부의 정치적 성격」, 『역사학연구』 11, 1997.

이기백, 「신라사병고」, 『역사학보』 9, 1957.

이문기, 「648·649년 신라의 대백제전 승리와 그 의미」, 『신라문화』 47호, 2016.

이문기, 「고구려 멸망기 정치운영의 변화와 멸망의 내인」, 『한국고대사연구』, 2008.

- 이상훈, 「김헌창의 난과 신라군의 대응」, 『군사연구』 138, 2014.
- 이상훈, 「신라 하대 왕위계승전과 사병의 확대」, 『신라사학보』 48, 2020.
- 이정신, 「신라하대 농민항쟁의 특징」, 『고려대학교한국사연구소』, 2000.
- 이호영, 「백제패망원인론」, 『경희사학』 제14집, 1987.
- 이희진, 「백제-신라 전쟁 양상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백제멸망 원인 재검토」, 『한국고대사탐구』 제12호, 2012.
- 장미애, 「의자왕대 정치세력의 변화와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제85호, 2012.
- 전기웅, 「고려초기의 신라세력과 그 동향」, 『부대사학』 17, 1993.
- 전기웅, 「신라말의 개혁과 최치원」, 『신라사학보』 5, 2005.
-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박씨왕가」, 『한국민족문화』 31, 2008.
- 전덕재, 「후삼국시대 신라의 동향과 멸망에 대한 일고찰」,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8, 2017.
- 정원주, 「남생의 실각 배경과 그의 행보」, 『한국고대사연구』 75, 2014.
- 정청주, 「신라하대 군진의 설치와 그 성격」, 『전북사학』 11·12, 1988.
- 조범환, 「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 129, 1991.
- 주보돈, 「신라 하대 김헌창의 난과 그 성격」, 『역사비평』 31, 1995.
- 하일식, 「신라의 지방통치방식에 대하여」, 『한국역사연구회회보』 3, 198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risis Management in the Process of the Downfall of the Three Kingdoms: Focusing on Changes in the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DIME) and the Indirect Strategies of Adversaries

Kim, Tai-Jin

This study evaluates the downfall of the three ancient kingdom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analytical framework of modern military science's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theory, the Joint Doctrine's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DIME: Diplomacy, Information, Military, Economy)," and André Beaufre's "Indirect Strategy" from a diachronic and comparative perspective.

The analysis reveals that the collapses of Baekje and Goguryeo represented failures in external crisis management, primarily caused by an inability to prevent and prepare for the sophisticated indirect strategies of external adversaries. In contrast, the demise of Silla presents a textbook case of total crisis management failure stemming from internal systemic obsolescence and the dissolution of the state's monopoly on legitimate violence. This terminal decline was characterized by the erosion of national goals over 170 years, a "strategic paradox" initiated by the Dokseo Sampungwa civil service exam that weakened the martial elite, widespread

tax evasion leading to fiscal depletion, the privatization of military forces, and a subsequent reliance on external security assistance (heteronomous security).

Furthermore, this paper reinterprets King Gyeongsun's voluntary submission (Gwibu) to Goryeo during the final "Recovery Stage" not as a conventional military defeat, but as a "Strategic Regime Transition"—a political resolution and final instrument of crisis management aimed at preserving ethno-national continuity and millennium-old cultural assets. Ultimately, by analyzing the rise and fall of the three ancient kingdoms, this study offers practical and actionable implications for strengthening the comprehensive and preventive national security readiness of the Republic of Korea today, as it faces North Korea's persistent erosive activities and China's multi-dimensional "Unrestricted Warfare (Chohanjeon)" threats.

Key Words : Baekje's Collapse, Goguryeo's Collapse, Silla's Submission (Gwibu), Crisis Management,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DIME), Indirect Strategy

원고투고일 : 2026.07.01. 심사수정일 : 2026.08.23. 게재확정일 : 2026.09.09.